

“안 나가고 안 만난다” 온라인 비대면택배 거래 급증

쿠팡 주문량 폭증, 배송인력 확대
SSG닷컴 식품매출 전년비 98% ↑
CU 배달서비스 한 달간 68% 경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집밖을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에 마트 대신 온라인으로 장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다보니 비대면 택배 배송이 보편화되고 있다.

쿠팡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고객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당분간 모든 주문 물량에 대해 '비대면 언택트 배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고객과 직접 만나 물건을 전하는 대신, 문 앞에 두거나 택배함에 맡기는 방식이다.

쿠팡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 때까지 실시되는 한시적인 안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송인력의 안전을 위해 전국 모든 물류센터와 캠프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전국 모든 물류센터에 열감지 카메라도 설치했다.



홈플러스는 고객과 직원 안전을 위한 예방적 살균서비스를 진행했다. /홈플러스

쿠팡은 주문량이 급증한 품목의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배송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신규 환자가 몰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고객들이 원활하게 생필품을 배송 받을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섰다. 19일 이후 이 지역 주문량이 평소보다 최대 4배 늘어, 조기 품질과 극심한 배송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쿠팡 측은 “현재 전례 없는 정도로 주문이 몰리고 있어 배송 인력을 긴급히

늘리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문 처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마트 SSG닷컴도 최근 한 달간 새벽배송을 포함한 ‘쓱배송’ 주문이 작년보다 20% 늘었다. 지난 19일에는 주문량이 폭증해 미리 주문할 수 있는 최대일자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쓱 배송이 모두 마감됐다. 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대비 98% 증가했고, 생수(96%), 채소류(75%), 홍삼·비타민 등 건강식품(70%)이 높은 성장세를



고객이 CU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BGF리테일

보였다.

G마켓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김치, 반찬, 생수, 생선 등 장보기 관련 품목의 판매량이 20~150% 늘었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20일에는 라면과 통조림, 즉석밥의 매출이 각각 80%, 72%, 65% 급증했다.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수요도 증가했다.

최근 한 달 CU의 도시락 매출은 메르스 때와 비교해 32.2% 더 높았으며 김밥 65.9%, 즉석식 93.9%, 시리얼 61.6%, 육가공류 29.2% 매출이 올랐

다. 또한, 외식이 줄어들면서 반찬류 29.0% 농산식재료 27.4% 과일 27.2% 판매가 늘었다.

또한, CU가 요기요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배달서비스의 이용 건수도 최근 한 달 동안 평소 대비 68.5% 경증 뛰었다.

온라인몰과 편의점 매출은 상승하는 반면, 소비자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백화점과 마트업계는 울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는 휴업에 돌입, 많게는 수백억의 매출 손실을 빚었다.

중국인 관광객과 파이공(보따리상)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했던 면세점 업계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재 유통업체가 영업 중단으로 입은 손해 액수는 수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 사상 최악의 1분기 실적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착한 건물주·사장님’... 임대료 내리고 마스크 노마진 판매

전주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전국 확산
 에버그린 등 ‘노마진 마스크 판매방송’

상가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나 소독제를 마진 없이 판매하는 중소기업 사장님 등 ‘착한 000’가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통을 분담하며 공생하려는 움직임이 어둠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아직은 미미한 이같은 ‘착한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이나 사무실 등의 임대료를 과감히 낮추는 것이 한 예다.

2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상가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서울 남대문시장, 경기 김포 등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자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10% 이상 내리기로 결정한다. 아울러 전주 시내에 있는 또다른 건물주 64명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10~20%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소식을 전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 지역 경제 침체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을 때마다 국민들의 ‘십시일반 운동’이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 오전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내수·소비업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도 “임대료 인화가 몇 분으로부터 시작해 나비효과로 남대문시장 등으로 확산하듯 국민·정부·지자체가 한 몸이 돼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대화 자리에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착한 임대인운동’을 시작한 건물주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전주의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서울 남대문시장으로 이어졌다. 남대문시장 건물주들이 상가 2000여 곳의 임대료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20%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하면 입점 상인들은 매달 2억원, 3개월간 총 6억원의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대문시장에는 약 1만2000개 점포가 있다. 전체의 6분의1이 착한 행보에 동참한 것이다.

김포의 장기동에서도 한 건물주가 4곳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 100만원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김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익명을 요청한 건물주가 입주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했다. 그 마음이 감사하고 따뜻하다”며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착한 사장님’들도 조명받고 있다.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이 공급이 달려 제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많은 이익을 포기하고 ‘노마진’에 공급하고 있는 몇몇 중소기업 대표가 그들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지난 18일 경기 안양에 있는 마스크 제조기업인 에버그린으로 달려가 격려와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승환 대표가 96년 설립한 에버그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 제조에 성공하는 등 마스크 제조와 관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에버그린은 최근 중기중앙회를 통해 마스크 1만개를 공급,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에 있는 우리 기업 200여 곳에 전달했다. 특히 에버그린이 이번에 공급한 마스크는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수

준으로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회장은 “마스크 물량이 부족함에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공급해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에버그린을 포함해 역시 마스크를 제조하는 씨앤투스성진, 마스크상사, 파인텍, 위텍코퍼레이션, 스리에스엠코리아, 레스텍, 케이엠은 공영쇼핑의 ‘마스크 노마진 게릴라 판매방송’에 관련 제품을 공급,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일반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튿날인 19일엔 손소독제 제조회사인 우신화장품도 방문했다. 우신화장품의 손소독제 역시 공영쇼핑을 통해 노마진으로 판매됐다.

박 장관은 “마스크 등의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수급 안정에 힘써주는 기업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코로나19 예방에 힘쓰는 기업들을 더욱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금 값, 사상 최고 1g 당 6만2860원

>> 1년 ‘감염병에 드러난...’서 계속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KRX 금시장은 지난 2014년 3월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1일 기준 금 값은 1g당 6만2860원으로 연초와 비교해서 10.5% 상승했다.

채권가격도 크게 올랐다. 3년물 채권 금리는 1.182%로 이미 기준금리(1.25%) 이하로 내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했다. 이달 들어서만 6.9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섰다.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 탓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은 외국인의 매도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즉각적 조치 필요”

한국 증시의 하락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 ‘약한 경제 체력’을 문제 삼는다. 중국은 확대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한국은 우려감만 큰 상황이다.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치는 1.6%(S&P)까지도 낮아진 상황이다.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요인)’로 꼽혀왔던 배당 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 지배구조 개선이 상당부분 개선됐음에도 위기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시 체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상장사 배당성향은 20%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춰가고 있지만 한국 증시 할인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위기에 한국 증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